

변진한의 철기문화

김 두 철*

I. 머리말

II. 변진한의 철기 생산

III. 지역권과 분기

IV. 변진한의 철기

1. 무기류
2. 농·공구류
3. 기타

V. 맺음말

참고 문헌

* 부산대학교

I. 머리말

삼한시대의 영남지역은 변한과 진한의 故地이다. 다호리유적은 변한에 속해있으면서 삼한의 문화를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본고는 다호리유적이 조성되었던 시기에 해당하는 삼한시대 후기 전반, 즉 목관묘를 사용하였던 전기 와질토기시대를 중심으로 하여 당시의 철기문화의 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이 시기는 영남지역에 철기문화가 처음 도입되었던 시기로서 다시 말해서 변진한에서의 철기문화 도입기의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려는 것이다. 그러나 말 그대로 도입기로서 당시의 철기문화는 수적으로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고 기종이 단순하여 철기를 통하여 고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분기를 행한다거나 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따른다.

그래서 시간적인 문제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토기문화의 분기법을 활용함으로써 그에 대응하는 철기문화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게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방법적으로나 추구하는 바가 당시의 철기문화의 변화 양상에 대한 전반적이고 대체적인 경향의 파악에 주력하고 있음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II. 변진한의 철기 생산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철기문화는 細竹里-蓮花堡類型이라 불려지는 전국시대 언나라의 철기문화가 서북부지방을 거쳐 충남, 전북의 서남부지역에 처음 전해짐으로써 시작되었으며, 본격적으로 철기가 생산, 보급된 것은 한사군 설치 이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보인다(이건무 1997). 변진한의 고지인 영남지방은, 경주 황성동 제철유적이 조사되고 창원 다호리 1호묘에서는 주조와 단조의 철기가 대량 부장된 것을 통해 늦어도 기원전 1세기 후반대에는 독자적인 철기의 제작기술이 이미 정착되었다고 보고 있었다(이남규 1997). 역시 한사군 설치 이후 한의 단조철기문화가 유입되었다고 보는 관점에는 큰 변화가 없다.

이에 대해 대구 팔달동유적에서는, 세죽리-연화보유형 및 서남부지역과도 관련이 있는 쌍합범의 주조철부를 중심으로 한 초기의 주조철기가 출토될 뿐만 아니라, Ia단계에 속하는 71호 목관묘에서 鍛造製의 철검이 출토되고 있으므로 송계현은 (변진한지역에서는) 주조철기에 앞서 단조철기가 출토되어 그 양상이 서남부지역과는 다르다고 하였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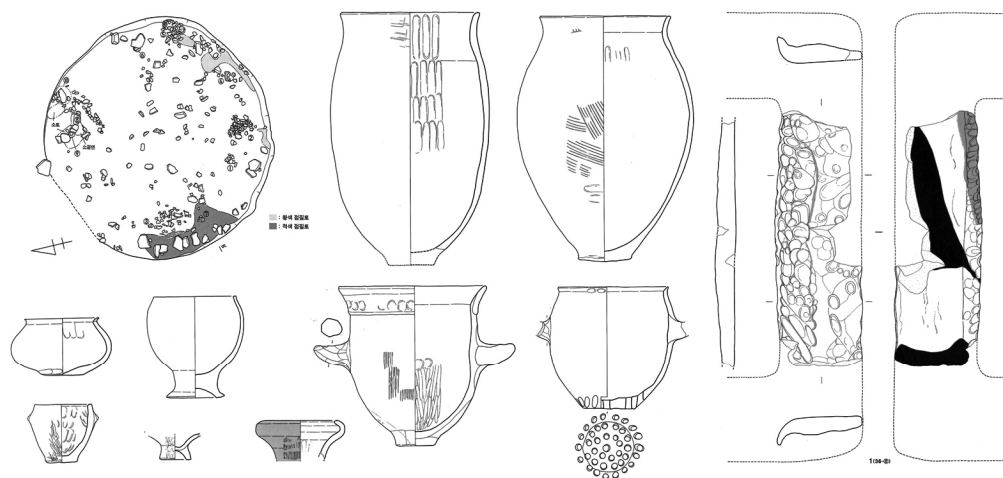
구체적인 예로서 기원전 2세기 후반에 속하는 동래 萊城遺蹟의 1호 주거지에서 단야작업이 행해진 것을 들고 있다. 그래서 변진한지역에서는 한사군 설치 이전에 철소재를 유입하여 간단한 단야작업을 통해 단조철기를 생산하고 있었으며, 그 후 주조철기 문화도 유입되었다고 보고 있다(송계현 2002). 변진한지역에서의 주조와 단조철기의 생산이 한사군 설치 이전으로 소급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한사군 설치 이전에 해당하는 삼한 전기의 점토대토기단계까지 소급하는 제철관련 유구들의 조사가 차차 알려지고 있다. 경남고고학연구소에서 조사한 사천 늑도유적 A지역의 가, 나, 다 세 구역에서는 30개 유구에서 노벽편, 송풍관, 철재, 단조박편 등 제철관련 자료가 출토되었다. 이 중에는 나-36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완형 철재가 용해로에서 생성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가-73호와 나-48호 유구에서는 단조박편이 출토되어 주조철기와 단조철기가 모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이남규 2006). 이 유적에서는 제철공정상 제1차에 해당하는 제련로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제철관련 유구가 집중되는 것에서 보아 내륙의 인접지역에서 발견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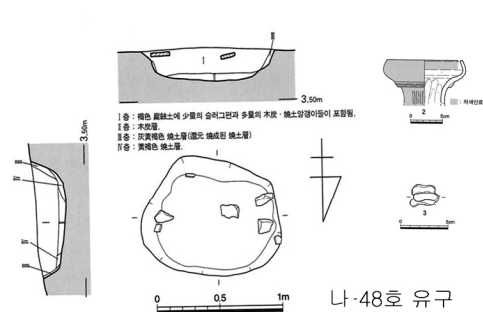
한편 울산 달천유적에서는 삼한시대의 채광유구가 조사되어 변진한에서의 철광석의 채굴도 알려지게 되었다. 이 시기의 채광유구는 두 종류가 있어서 이 중에는 삼한시대의 주거지가 채광유구를 파괴하고 설치되어 그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주거지에서는 와질의 주머니호와 삼각구연의 점토대토기가 출토되어 보고자는 기원전 1세기대로 추정하고 있다(김광수 2006).

이와 같이 변진한지역에서의 철기제작은 삼한 전기로 소급되는 유구에서 채광에서 단야나 주조에 이르는 전 공정이 확인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 조사된 제철관련 개별 유구들이, 그 편년이 한사군의 설치(기원전 108년)를 기준으로 그 이전이나 이후나 하는 논의를 넘어서, 늑도유적과 같이 삼각구연점토대토기가 중심을 이루는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달천유적에서도 와질의 주머니호가 출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종말기 무문토기의 출토가 우세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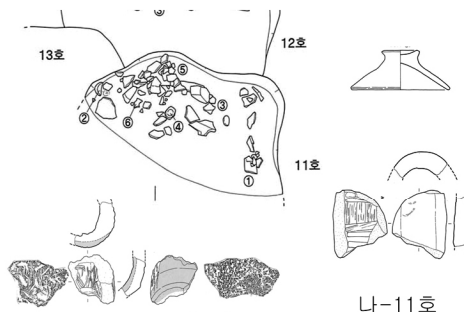
다시 말해 변진한지역의 철기문화는 삼각구연점토대토기의 이 지역 등장과 궤를 같이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신경철은 삼각구연점토대토기문화의 출현을 위만조선의 성립(기원전 194년)과 준왕의 남하를 계기로 보고 그것이 영남지역에서 기원전 2세기 중엽경에 성립한 것으로 보고 있다(신경철 1995). 변진한의 철기문화 수용을 이러한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다호리 1호묘에서 다량으로 출토된 단조제와 주조제 철기의 존재를 이해하기에 합리적이라고 본다.



나-36호 주거지 출토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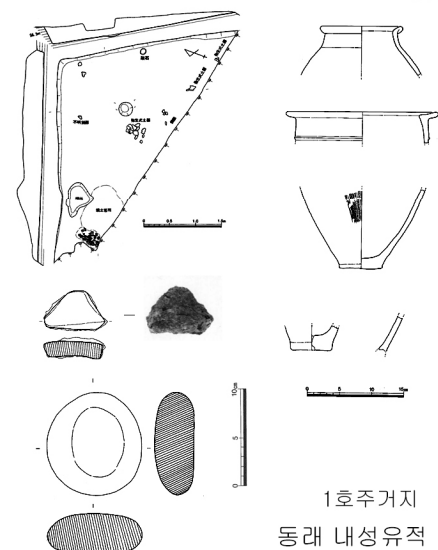


나-48호 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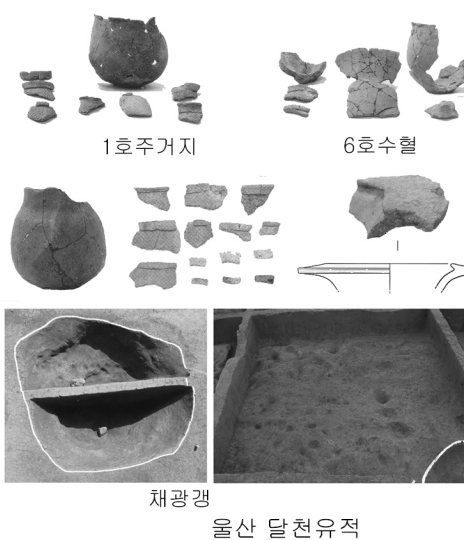


나-11호

삼천포 늪도유적



1호주거지
동래 내성유적



1호주거지
6호수혈
채광갱
울산 달천유적

도면 1. 진변한의 제철관련 유구와 출토유물

제철 관련 자료는 앞으로도 자료의 증가가 기대된다. 발표자는 철기의 생산과 제작과 관련해서는 별로 식견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철기제작과 관련해서는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본다. 즉, 생산에 대응해 있는 소비의 측면을 살피는 것이다. 당시의 소비와 관련해서는 완제품이 주로 목관묘를 위시한 분묘유적에서 출토되고 있다. 분묘 출토의 상징성은 제외하더라도, 그 완제품이 출토되는 시기와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간접적으로 생산의 수준을 역추적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변진한의 철기문화는 몇몇 기종에서 출현 초기부터 토착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기류에서는 철검과 철촉이 토착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철검은 短莖式인 한국식동검을, 철촉은 무경역자식의 석촉을 모본으로 하여 만들어졌다고 판단된다. 燕이나 漢의 철기문화에서는 손잡이가 일체형이거나 長莖式인 장검이 기본형이며 석촉도 단면 삼각형의 것이 주류인 것을 감안하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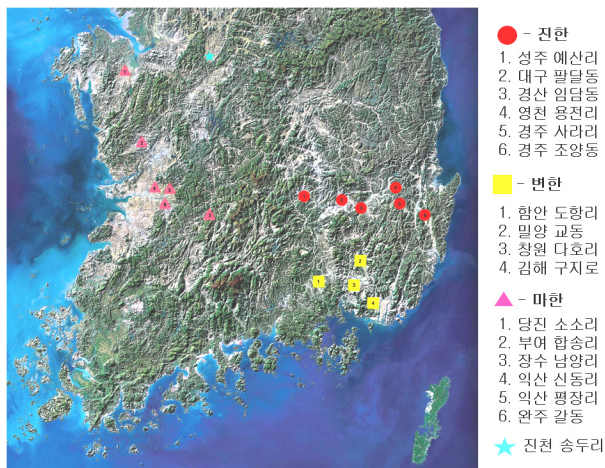
농공구류에서도 주조철부는 쌍합범으로서 細竹里-蓮花堡類型을 그대로 잇거나 서남부 지역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이내 단합범에 의해 만들어진 鍬部 단면 梯形인 변진한에 특유한 형태의 철부가 정착된다¹⁾. 단조철부도 有肩式과 無肩式이 있는데, 무견식 중 공부와 신부의 경계가 굴절되는 것과 유견식의 것은 한국식동검문화기의 銅斧(鑄型)를 조형으로 하고 있음은 이미 지적되고 있다(안재호 2000). 철소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판상철부는 물론이고, 검과 따비도 변진한에 독자적인 형태로써 정착하고 있다.

이처럼 변진한의 철기문화는 그 形式에서 보아, 재래의 한국식동검문화기의 형식을 그대로 계승한 것과 細竹里-蓮花堡類型을 이은 서남부지역의 것을 받아들인 것 및 낙랑을 통해 수용한 새로운 형식의 것 등 3者が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와질토기의 성립이 기존의 제작전통 위에 새로운 제도술을 받아들여 성립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특히 토착 형식을 계승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것이 출토되는 시기가 소급된다면, 변진한에서의 철기문화의 수용 및 생산의 단계도 소급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1) 村上恭通은 단면 梯形의 주조철부(鑄)는, 龍淵洞유적 출토품을 포함한 燕國産의 경우는 單合范에 의해 주조되나, 서남부지역을 위시한 韓半島産의 주조철부는 쌍합범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는 靑銅斧 제작의 기술전통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고, 이것들이 서북부 지역의 어딘가에서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村上恭通, 2008, 『東アジアにおける鐵器の起源』 『東アジア靑銅器の系譜』, 雄山閣).

Ⅲ. 지역권과 분기

이제 변진한의 목관묘 출토 철기문화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지역적·시간적 관계를 대략 살펴보기로 한다. 발표자는 전기와 질토기 단계에는 대구-경산-영천-경주를 잇는 선과 낙동강하류역에서 강을 따라 김해-창원-밀양-함안을 잇는 두 개의 주요한 교통망이 있는 것에 주목하였다(김두철 2006). 낙동강이나 그 지류를 이용하여 동서로 연결된 이들 두



도면 2. 삼한의 주요 유적(목관묘 단계)

교통로를 편의상 東南北路와 東南南路라 부르기로 한다²⁾. 이 두 교통로는 낙동강 본류와 동해연안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면서 각각은 진한과 변한지역의 주요 交通路로서도 작용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성주 예산리, 대구 팔달동, 경산 임당동, 영천 용전리, 경주 사라리, 경주 조양동유적과 함안 도항리, 밀양 교동, 창원 다호리, 김해 구지로유적을 주요대상으로 하였다. 이 두 개의 遺蹟群을 잠정적으로 각각 진한과 변한에 대응하는 유적군으로 대표 짓고 각 유적에서 출토된 철기류의 출토양상을 비교하는 것으로 하겠다.

또한 시간성의 파악을 위해서 편의상 변진한에서 초기 철기가 출토되는 시기를 세 개의 小期로 구분하기로 한다. 다호리유적에 대해서는 안재호에 의한 9단계 4획기로의 편년이 시도된 바 있다(안재호 2000). 이 밖에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전기와 질토기에 대해 속성분석법이나 형식학적 방법을 통한 분기와 편년이 이루어지고 있다. 형식학적 방법에서의 형식의 분류도 주요 속성의 조합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류 자체는 모두 주요 속성의 분류와 그 조합에 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개별 유물의 각 속성들이 변화의 폭에 차이가 있어서 일시에 연동하면서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일 것이다. 따라서 細分類를 줄여 분기의 폭을 넓히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 극복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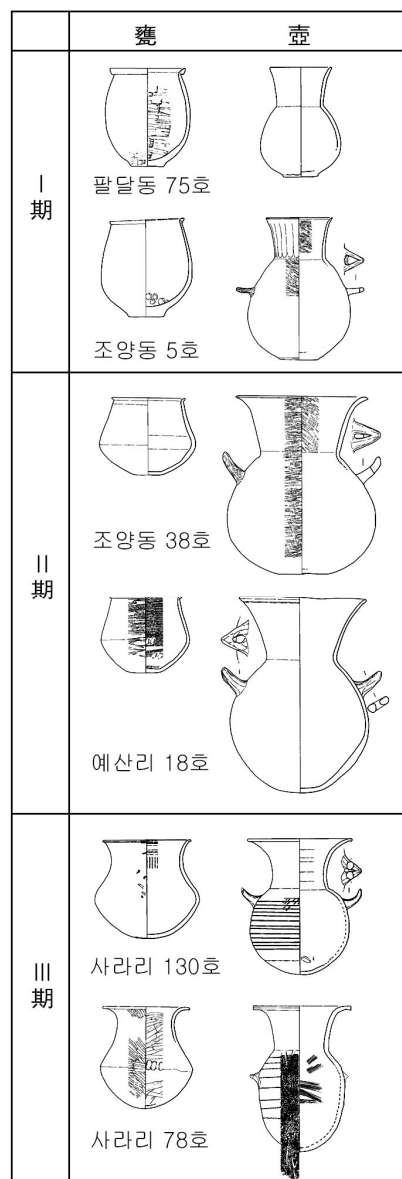
2) 앞의 東南은 한반도 동남지역을 나타낸다. 주요 유적이 대부분 이 루트에 연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삼한 후기 후반)에만 한정한다면, 각각을 ‘辰韓路’, ‘弁韓路’라 불러도 무방하리라 생각한다.

수 있다고 본다. 본 발표에서는 시간성이 예민하지 않은 철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분기를 최소화하였다.

기왕의 연구 성과를 참조하여 전기 와질토기를 두 단계로 나누고, 그 이전의 무문토기단계를 별도로 두어서 모두 3분기로 한다. 이는 변진한에서의 철기문화의 수용이 전형적인 와질토기의 성립에 앞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분기는 당시의 대표적인 기형인 주머니甕와 組合式牛角形把手附甕를 1차적 기준으로 삼는다. 그 양 기종의 분류 기준은 대략 다음과 같다.

I기(기원전 50) : 대상 굽을 가진 산화염 조성의 무문토기이다. 완전한 밀폐소성인 전형 와질토기로 넘어가기 전의 과도적 양상을 띠고 있다. 주머니호는 동최대경이 동하방에 있고 胴部는 둥글게 내만하면서 오므라져 구연에 이른다. 구연은 대개 점토대토기의 구연이 극소화된 형을 취한다.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도 동최대경이 동하방에 있어 동부가 양과형을 하며 頸部는 基部가 좁고 거의 직립하듯이 벌어진다. 이 기종은 원래 흑색마연 장경호를 이은 것으로서 파수가 없는 것(Ia)과 있는 것(Ib)을 기준으로 小分期 할 수 있다.

II기(기원전 50~기원후 100년) : 양 기종 모두 와질토기이다. 주머니호는 말각평저 혹은 원저로서 최대경은 전자보다는 약간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동하방에 있다. 최대경 부위에서 그대로 내경하여 짧게 외반하는 구연에 이른다. 이때 동상반부는 내만, 직선, 외반의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대체로 직선에 가깝다.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는 동체부에 타날이 가해지지 않은 것을 1차적 기준으로 한다. 동최대경이 하방에 있어 동부가 양과형에 가까운 것



도면 3. 各期別 甕(주머니호)과 壺(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의 기형변화 [S=1/12]
(분기 내의 상하도 시간성을 반영함)

(a)과 동 중위에 있어 구형을 띤 것(b)이 있다. 경부는 직선으로 벌어진 것(a)과 중간을 지나 부드럽게 외반하는 것(b)이 있다. 각각 전자가 선행하는 속성으로 판단된다. 이들의 조합으로 분기도 가능하다. 그 경우 주머니호는 말각평저에 동최대경이 보다 하방에 있는 것(a)과 원저에 동최대경이 중위에 가까운 것(b)과의 조합이 가능하다고 본다.

Ⅲ기(기원후 100~180년) : 와질토기로 소성이 전 시기에 비해 더욱 향상되었다. 주머니호는 원저(a)이며 첨저에 가까운 형(b)도 있다. 앞 시기까지의 것을 甕으로 분류한다면, 동상반부가 외반하여 壺로도 부를 수 있는 형태이다. 이 경우 외반부위를 기준으로 그 이하를 동체부로 간주한다면, 동최대경은 거의 중위에 위치한다. 최대경부의 위로는 중간에서 부드럽게 외반한 것(a)과 구연부 가까이에서 크게 외반한 것(b)이 있다. 후자는 최대경에서의 꺾임이 급한 편이다. 조합식우각형과수부호는 동체에 타날이 가해진 것이 일차적인 기준이 된다. 동부는 구형인 것(a)과 종으로 긴 편구형인 것(b)이 있다. 동최대경은 중위(a)나 상방(b)에 위치한다. 경부는 기부에서부터 부드럽게 외반하는 것(a)과 구연부 가까이에서 급격하게 꺾이는 것(b)이 있다. 이 변화는 공반하는 주머니호와 연동한다. 전체적으로 동체부는 소형화하고 경부가 상대적으로 커져 강조되고 있다.

위에 제시한 각 속성들은 상호(a와 b) 조합될 가능성은 있다. 여러 속성들 간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주머니호와 조합식우각형과수부호를 기준으로 설정한 위의 I·Ⅱ·Ⅲ기의 각 범위를 벗어나 서로 공반될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 주머니호와 조합식우각형과수부호의 조합이 창원 다호리유적 발굴 20주년 국제학술 심포지엄 당시 발표자가 대상으로 삼은 철기 공반 유구들에서 어긋나 보이는 것은 조합식우각형과수부호에 타날이 보이지 않으나, Ⅲ기의 빠른 단계에 속한다 할 수 있는 팔달동 111호묘 정도이다³⁾.

양 기종이 공반 출토된 유구들 중 각 기에 속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I 기: 팔달동 45호, 조양동 5호

Ⅱ기: 예산리 18, 31호, 임당동 A-12·A-I-42·A-I-49·A-I-76·A-I-96·A-I-135·A-I-137·A-I-147·A-I-148·E-82·E-91·E-122호, 조양동 38호, 도향리 70호, 다호리 47·53·63·67호

3) 주머니호를 우선 기준으로 하였다. 조합식우각형과수부호는 타날이 가해지지 않았으나, 球形胴이 縦으로 약간 길어지며 어깨가 강조되고 있어 후행하는 느낌을 준다. 이러한 기형의 것이 몇 점 출토되고 있어 Ⅲ단계의 빠른 단계에 위치지어도 무방하다고 본다.

Ⅲ기: 팔달동 111호, 조양동 23·31·36호, 사라리 78호, 사라리 130호, 도항리 60·65호, 말산리 24호, 다호리 31·64·69호, 구지로 12호

이러한 안정적인 공반 관계의 확인을 통해서 두 기종이 공반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분기가 가능하게 되었다. 양자의 공반 관계를 우선하고, 다음으로 각각이 단독으로 출토된 유구, (양 기종이 출토되지 않을 경우는) 이들과의 공반 관계에 있는 토기의 참조, 마지막으로 (토기가 출토되지 않을 경우) 철기의 비교라는 순서로 검토하여 분기를 행할 수 있다.

각 분기의 曆年代 비정에 대해서는 잠정안으로서 제시해두고자 한다. 사실 이 시기에 연대를 결정할만한 자료는 없다. 각 연구자마다 다양한 견해가 개진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존의 통설적인 해석과 같이, 토기나 묘제라는 고고학적 물질자료의 변화 획기나 전후의 역사적 정황 및 銅錢이나 거울과 같이 교차연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은 참고가 된다.

먼저 하한 쪽을 본다면, 본고에서는 목곽묘의 출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토기의 제작·사용시기를 고려하였으므로, 과도기를 거쳐 묘제-목관묘에서 목곽묘로-나 토기문화-전기 와질토기에서 후기 와질토기로-라는 양자의 공반관계가 다음의 새로운 문화에 의해 안정적으로 대체된 시기, 즉 새로운 물질문화가 정착한 시기를 획기로 파악코자 하였다. 여기서 ‘過渡期’를 桓靈之末(기원후 146~189)의 사회변동에 대응시켜도 좋다고 보았다.

상한에 대해서는, 최근의 중국 거울에 대한 연구성과(岡村秀典 2007)를 참조하고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변진한에서의 철기문화의 수용을 반드시 낙랑의 성립과 연계시킬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종래의 연구는 전형적인 와질토기와 중국거울인 異體字銘帶鏡이 출토된 조양동 38호묘를 기준으로 Ⅱ기의 연대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최근 岡村秀典은 이 형식의 거울의 연대를 기원전 1세기 2/4분기에서 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바와 같이 낙양소구한묘 Ⅱ기(기원전 73년~기원전 33년)에 그 중심연대가 있다고 한다면, 전세를 고려하더라도 굳이 기원후 1세기 전엽에 비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제작시기에만 비중을 두지 않고 부장시점까지의 사용과 전세를 함께 고려하더라도 기원전 1세기 후반대로 보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점에서 그에 선행하는 I 단계와의 경계를 기원전 50년으로 잡더라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본다⁴⁾.

4) 이 연대는 조양동 38호묘만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조양동 5호와의 사이에 새로운 형식이 개제되더라도 무방하다고 본다.

이와 같이 잠정적이거나 연대의 기준을 대략 정하고 Ⅱ기와 Ⅲ기의 경계시점을 구한다면 해당 시기의 분묘의 수, 토기의 형식 수, 사회의 변화·발전 속도 등을 참작하더라도 현재 통용되고 있는 기원 100년은 무난하다고 보았다.

어쨌든 위의 분기법을 적용시킴으로써 상기 유적들의 조영시기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단, 여기에서는 짧은 자료조사 기간으로 인해 철기가 출토된 무덤(목관묘)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음을 밝힌다. 따라서 엄격히 말하면 철기가 부장된 분묘 수의 변화 양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표본추출의 의미를 지나 전체 상과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진한의 유적들을 보면, 성주 예산리유적은 Ⅰ기에서 Ⅲ기까지 계속 무덤이 조영되고 있다. 철기 출토 고분은 Ⅲ기가 많고 Ⅱ기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전체 유구는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대구 팔달동유적은 상기의 여러 유적들 중 Ⅰ기의 수가 가장 많은 유적이다. Ⅱ기와 Ⅲ기로 가면서 차차 그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Ⅲ기는 Ⅰ기에 비해 1/4에 지나지 않는다. 이 분묘역이 가장 성했던 때가 Ⅰ기이고 차차 쇠퇴했다고 볼 수 있다. 경산 임당유적은 Ⅱ기 중심의 목관묘 유적이라 할 만하다. 모두 86기의 목관묘가 조사되었는데⁵⁾, 철기가 출토된 무덤 중에서 Ⅰ기의 것은 F지구의 2기뿐이다. A, A-Ⅰ, A-Ⅱ, D-Ⅱ, E지구에서 조사된 목관묘는 모두 Ⅱ기에 속한다. C-Ⅰ 지구에서 조사된 5기의 목관묘는 모두 Ⅲ기에 속한다. 이 구역에서는 다음의 목관묘가 대량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점에서 보아 위의 Ⅰ·Ⅱ·Ⅲ기의 분기는 매우 유용하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영천 용전리는 1기가 조사되었는데, Ⅱ기에 속한다. 이에 반해 경주 사라리유적에서 조사된 7기의 목관묘는 모두 Ⅲ기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토기가 출토된 4기가 모두 Ⅲ기이다. 경주 조양동유적은 Ⅰ기에 속하는 5호묘를 포함하여 Ⅱ·Ⅲ기의 무덤이 조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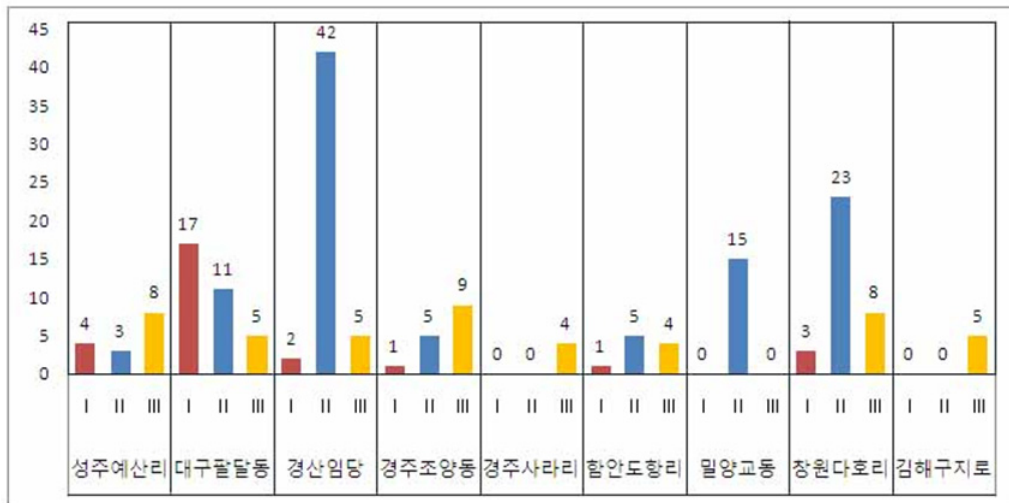
다음으로 변한지역을 보면, 도항리·말산리유적은 Ⅰ기로 추정되는 48호묘를 제외하면 Ⅱ기와 Ⅲ기의 무덤이 거의 같은 비율로 조영되어 있다. 교동유적은 3호묘에서 星雲鏡, 17호묘에서 異體字銘帶鏡이 1面씩 출토되기도 하였으나, 모두 Ⅱ기에 속하는 유구들만으로 이루어진 유적이다. 반면 구지로유적은 Ⅲ기에만 조성된 유적이다. 진한에서와 마찬가지로 시기를 달리하여 조성된 유적이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다호리 유적은 공표된 자료에 한정해서 보면, Ⅰ기에 해당하는 유구가 소수 있고, Ⅱ기에 가장 많이 조영되다가

5) A지구에서 F지구까지 문화재보호재단과 영남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한 것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Ⅲ기가 되면서 감소하는데, Ⅲ기의 유구는 Ⅱ기에 비해 약 30%정도 조영되었다.

이상을 정리하면, 양지역을 통틀어 가장 선행하는 I 기의 유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대구 팔달동유적이다. 성주 예산리유적과 함께 변진한지역에서 철기를 수용하는데 가장 선도 역할을 한 유적이라 할 수 있다. Ⅱ기에 가장 활발하게 조영이 이루어진 곳이 임당동, 다호리, 교동유적들이다. 사라리와 구지로는 조사유구가 많지는 않으나 Ⅲ기에 새로 조영이 이루어진 유적이다.

표 1. 변진한의 철기 출토 유구의 시기별 현황



변진한의 철기수용이 동남남로보다는 동남북로 쪽이 먼저 개발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서쪽에 치우쳐 있는 것에서 내륙을 통한 수용을 생각할 수 있다. 남부지역에서 먼저 철기를 수용하였던 부여, 당진, 장수, 익산, 완주 등 서남부지역과 보다 가까운 지리적 이점이 활용된 결과라 생각할 수도 있다.

IV. 변진한의 철기

지금부터는 변진한의 목관묘에서 출토된 개별 철기에 대하여 약술하기로 한다. 지면 관계로 전체 조건표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유적별로 철기가 출토된 무덤 수를 나타

낸 것이 다음의 표이다. 철기는 무기류와 농공구류 및 기타로 구별하였다. 여기서 다호리유적은 아직 정식보고서가 未刊인데다, 철기가 출토되었다고 보고된 유구 48기 중에 파괴되거나 도굴의 피해를 입지 않은 유구가 7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2. 변진한의 철기 출토 목관묘 현황표

권역	분류명 유적명	유구조합					무기류					농·공구류										기타			
		총	철	무	공	무공	모	검	촉	과	도	도자	착	사	검	따비	관부	주부	단부	외	마구	기타	편		
진한	성주예산리	41	17	10	13	7	7	2	5	1		2	2	2	5		3	4	7	1	1	2	1		
	대구팔달동	102	38	19	32	15	9	13	3		1	9	8	9	8	2	10	11	11	1		1	9		
	경산임당동	86	55	28	48	22	20	23	6		1	7	10	7	16	4	15	4	35	2	5	12	6		
	경주조양동	29	17	10	17	9	7	5	4	1		4	6	5	14		4	5	13			2	1		
	경주사라리	7	7	3	7	3	2	3	1		1	1			5		1	1	6		1	1	3		
	소 계	265	134	70	117	56	45	46	19	2	3	23	26	23	48	6	33	25	72	4	6	18	20		
변한	함안도항리	21	13	4	10	2	3	4				1			4		1	1	8				2		
	밀양교동	22	16	7	16	7	6	6		1		1	5	5	7	1	10	3	13	1	1	2	1		
	창원다호리	69	48	28	39	24	21	18	10	1		7	11	8	23	5	10	5	25	5	3	8	8		
	김해구지로	14	8	3	6	1	2	1	1			3			3			1	1			1			
	소 계	126	85	42	71	34	32	29	11	2	0	12	16	13	37	6	21	10	47	6	4	11	11		
[법례] 총=목관묘 총수, 철=철기 출토 목관묘수, 무=무기류 출토 무덤수, 공=농·공구류 출토 무덤수, 무공=무기류와 농·공구류가 함께 출토된 무덤수, 외=왼쪽 목록 이외의 농·공구류 출토 무덤수, 기타=위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철기류 출토 무덤수, 편=용도불명의 철기 파편 출토 무덤수																									

1. 무기류

당시의 주요한 무기류는 長兵인 鉞, 短兵인 劍, 射兵인 鏃의 3자이다. 모와 검의 출토 비율은 비슷하나 촉의 출토는 그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후대와 비교해 큰 차이이다(김두철 2006). 위 주력무기들은 鉞를 제외하고는 독자적인 갖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낙랑과도 갖춤새가 다른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기의 변화와 개량도 매우 느리다는 점도 당시 사회상과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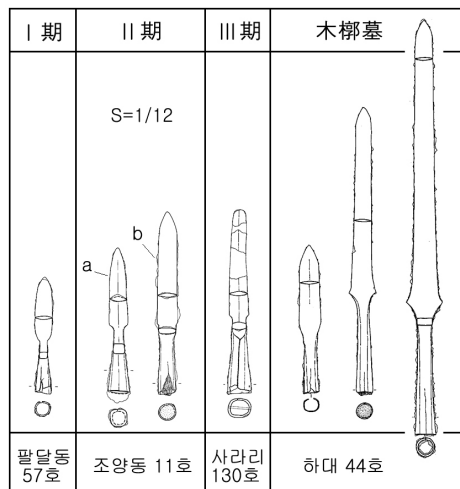
鉞는 모두 直基形의 銚部를 가진다. 검신이 봉부에서 관부에 이르기까지 벌어지는 것(a)과 거의 평행하는 것(b)의 두 가지 형식이 있다. I기의 철모는 모두 전자의 것으로 검신과 봉부의 길이 비도 1:1에 가깝다. 이것이 서서히 b로 변해가며, 검신도 봉부에 비해 길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검신을 평행하게 하는 대신에 관부 쪽을 약간씩 돌출시켜 山字關의 형태로 처리해 가는 것도 하나의 경향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III기가 되면 더욱 잘 드러나며, 목곽묘단계에 접어들며 각각 다른 2개의 형식(계열)으로 정형화된다. 초기목곽묘 단계의 철모는 하나는 소위 二段柄(銚)式으로 불리는 것으로서 二段關部를 가지며 검신이 거의 평행하다. 이 형식은 사라리 130호묘 등 목관묘 III기에 정형화되어 나타나기 시작한다. 또 하나는 山字關을 가진 것으로 공부에 비해 신부가 크게 길어진 형식이다. 이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이 형식의 철모는 후에 儀器化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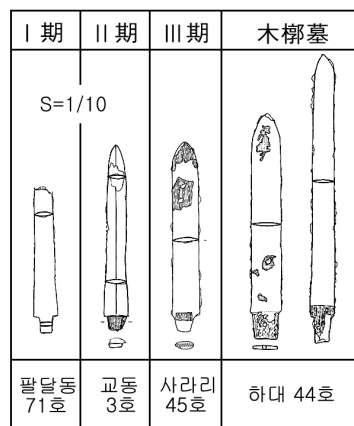
I기의 철모들도 관부는 斜關으로 직선화되어 있으나, 대구 팔달동 57호 철모는 곡선으로 처리되어 있어 변진한 출토의 철모 중에서는 가장 빠른 형식의 것으로 생각된다. 흑색마연 장경호, 두형토기와 함께 가장 빠른 형식에 속하는 조합식우각형파수부장경호(무문토기)가 공반되었다.

2) 劍

劍은 청동단검을 모방하여 만든 短莖式이 제작된다. 처음에는 靑銅劍을 대체하여 漆鞘(金具)와 공반하며 청동제 검파나 검파두식을 장착한 것이 출토되기도 한다. 따라서 실용무기라기보다는 의기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하는 의견도 있다(송계현 2002). 그러나 이 형식이 크게 형태의 변화도 없이 목곽묘단계까지도 계속 이어지



도면 4. 철모의 변화



도면 5. 철검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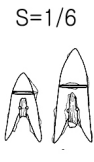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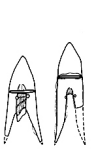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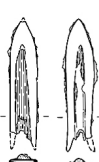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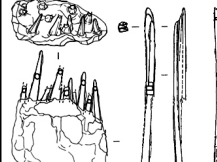



며, 삼국시대 초기에는 鉞로서 사용되고도 있으므로 반드시 의기적 성격만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당시 사회가 적극적으로 무기를 개량해 나갈 필요를 느끼지 못할 만큼 집단적 전쟁과는 일정 거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이 목관묘 단계에는 검이 모와 비슷한 비율로 출토되지만, 목곽묘 단계가 되면 모가 검의 두 배나 증가하게 된 것은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무기의 효용성과 사회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김두철 2006).

검신은 폭이 상대적으로 넓거나 좁은 것이 있으나 크게 경향성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역지로 말한다면, I·II기에는 미미하지만 검신의 폭이 넓어져 관부 쪽이 최대폭을 이룬 것에 대해 III기에는 검신의 폭이 넓고 좌우가 평행하여 거의 같은 폭을 이루게 제작되며 기부 폭이 넓은 것 등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이 특징은 다음 목곽묘 단계의 검신에 그대로 채용된다.

3) 鉞

鉞은 무기류 중 副葬이 가장 늦어 I기의 자료는 없고 II기에 들어서 출토되기 시작한다. 대부분 無莖三角形逆刺鉞이다. 그 외 신부가 매우 길고 가는 有莖(四角)錐形鉞이 몇 점 알려지고 있다. 추형촉은 II기의 성주 예산리 31호묘에서 칠을 한 목제화살통 속에 담긴 채 10점이 일괄로 출토되었으며, 조양동 52호에서 출토된 파편 한 점도 이 형식의 것으로 추정된다. III기의 자료로는 팔달동 50호, 117호묘에서 한 점씩이 출토되었다.

三角形逆刺鉞				(有莖)錐形鉞				
II		III	木槨墓	I - II	II	III		
S=1/6 								
다호리 51호	다호리 47호	다호리 70호	조양동 3호	팔달동 89호	예산리 31호	조양동 52호	팔달동 50호	팔달동 117호

도면 6. 철촉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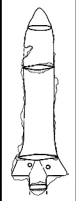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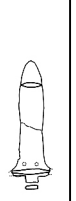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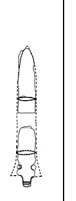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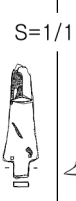
三角形逆刺鏃 중에서 특이한 일례는 다호리 47호묘(Ⅱ기) 출토품으로서 짧은 短莖이 붙어 있는 특이한 형식이다. 가장 많이 출토되는 無莖三角形逆刺鏃은 Ⅱ기에는 역자가 깊고 봉부에서 역자로 가면서 폭을 계속 증가하거나 혹은 역자가 밖으로 꺾여 벌어짐으로써 모두 역자 끝이 가장 폭이 넓게 된 것이 일반적이다.

Ⅲ기가 되면서 폭에 비해 신부가 길어지는 형식이 많이 출토되고, 신부도 평행하거나 오히려 역자 쪽에서 오프라드는 형식도 나타난다. 이 형식은 다음에 조양동유적에서 많이 보이는 바와 같이 신부가 길면서 폭이 오프라들었다가 벌어지는 형식으로 변한다.

철촉이 다호리유적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점도 주목할 만하다.

4) 戈

戈는 원래 車戰用의 무기로 개발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환경에서는 효용성이 떨어지는 무기이다. 이 때문에 무기로서는 크게 발달하지 못하고 의기화된 한국식동과의 모조품으로서 일부가 제작되었다고 생각된다. 발굴품은 영천 용전리에서 나온 두 점을 포함하여 모두 6점이며 이밖에 호림박물관소장 5점, 부산박물관소장 1점이 더 알려져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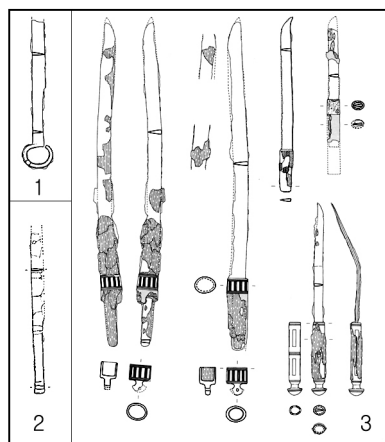
I		II		
			S=1/10 	
조양동 5호	다호리 1호	교동 10호	예산리 31호	용전리

도면 7. 철과의 변화

발굴품 6점은 이른 시기의 조양동 5호묘와 다호리 1호묘의 철과가 동과의 모방에 가까워 좌우 비대칭의 감이 있으나, 교동 10호묘의 동과는 과신이 좁고 철검에 가까운 형을 하고 있다. 위 3점은 모두 穿이 원공이다. 이에 반해 예산리 31호묘의 철과는 극히 형식화되었다. 戈身이 그대로 벌어져 연결됨으로서 胡와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다. 穿도 方孔으로서 内の 기부 가까이에 뚫어져 있다. 영천 용전리의 두 점은 穿이 각각 원공인 것과 방공인 것의 양자가 함께 출토되었다. 종래 철과는 원삼국시대 초기에만 일시적으로 제작되었다가 제작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이건무 1989), 예산리 31호묘의 예로 보아 더 늦게까지 형식화된 자료가 출토될 가능성이 있게 되었다.

5) 刀

刀는 목관묘 단계에 가서야 출현하는 무기이다. 목관묘 단계에는 環頭刀子나 短刀로서



도면 8. 철도 각종 (S=1/10)

Ⅱ기 : 팔달동 30호(1), 임당동 A-I-74호(2)

Ⅲ기 : 사라리 130호(3)

만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환두도자는 削刀 등의 기능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이건무). 팔달동 30호묘의 환두도는 도신 선단이 부러졌는데, 크기가 약간 큰 환두도자의 가능성이 크다. 임당동 A-I-74호묘의 刀는 인부가 모두 파손되었으며 경부가 길고 관부가 뚜렷하지 않아 목곽묘 단계와 그 이후의 刀와는 다른 이형식이다. 위 2점은 모두 刀로서의 기능을 하였는지 확실하지 않다. 또 사라리 130호묘에서도 내만하는 검신의 길이와 폭이 각각 34.0~1.8cm, 33.4~2.0cm인 소도가 출토되었다. 청동으로 된 柄緣-柄頭金具를 가진 장식도로서 목곽묘 단계에 출현하는 刀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

인다.

2. 농·공구류

농·공구류라 일괄하였으나 공구류의 성격이 강한 것은 刀子, 鑿, 鉞이며 농구류는 鎌과 따비이다. 판상철부, 주조철부, 단조철부 등 斧類는 기능에 따라 掘地, 伐採, 木加工 등과 같은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판상철부나 주조철부는 철소재로서의 역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1) 刀子

刀子는 일반적으로 휴대용 다용도 공구로 쓰이는 도구이다. 일반적으로 환두도자와 유경식도자의 두 종류가 있다. 환두도자는 낙랑을 통해 수용된 것이다. I 단계의 조양동 5호묘를 위시해 다호리 1호·29호·54호묘, 도항리 70호묘, 팔달동 92호묘, 임당동 A-I-122호·143호·148호묘 등에서 출토되었다. 유경식도자는 대부분이 斜關이고 등이 굽어 도신이 내만하는 형식의 것이 많다. 사라리 130호묘, 조양동 51호묘에서는 刀先이 곡도자처럼 뒤로 꺾여진 예도 출토되고 있다.

2) 鑿과 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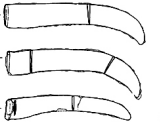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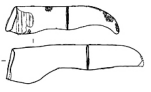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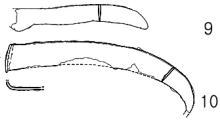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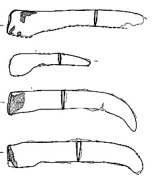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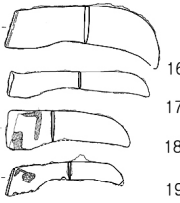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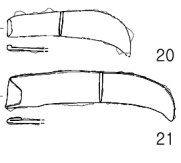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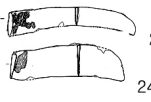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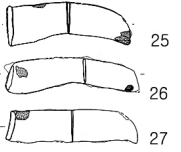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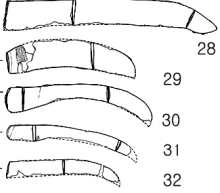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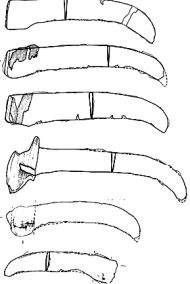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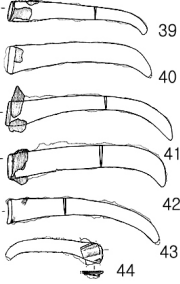
끌과 조각도에 해당하는 鑿과 鉞는 분묘 내 공반율이 가장 높은 유물들이다. 鑿이나 鉞가 각각 출토된 무덤들 중 공반되는 비중을 보면, 예산리=2/2, 팔달동=4/13, 임당동=4/13, 조양동=5/6, 사라리=0, 도항리=0, 교동=5/5, 다호리=6/12, 구지로=0으로 나타난다. 특히 II기에 공반율이 높게 나타난다.

I	II		III	木槨
 S=1/10	 2 3 4	 5 6 7	 8 9 10	 11
1: 팔달동 57호	2: 팔달동 30호 3: 팔달동 89호 4: 교동 10호	5: 예산리 31호 6: 교동 20호 7: 다호리 51호	8: 다호리 71호 9: 다호리 70호 10: 조양동 62호	11: 조양동 3호

도면 9. 철착·철사의 변화

鑿은 모두 銼部를 가지며 신과 공부의 경계에서 폭을 증가시킨 것(a)과 직선으로 이어지는(b) 두 가지 형식이 보인다. 鉞는 선부가 뾰족하게 처리된 것(a)과 단지 抹角된 것(b)의 두 종류가 보인다. 또한 기부가 직선으로 처리된 것(a)과 先部처럼 뾰족하게 처리된 것(b)의 두 종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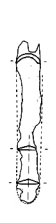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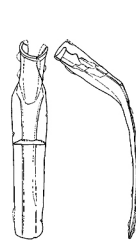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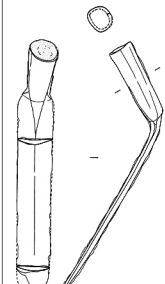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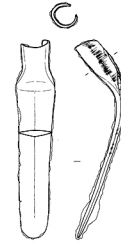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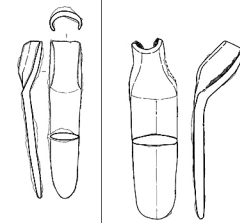
팔달동 57호의 착과 사는 소형으로 제작되었는데, 모두 전자의 특징을 가진다.

	I	II	III	木槨墓	비 고
팔달동 유적		 1 2 3	 4		1: 30호 2: 74호 3: 107호 4: 112호
예산리 유적			 5 6		5: 4호 6: 17호
사라리 유적			 7 8		7: 130호 8: 110호
용전리 유적		 9 10			9: 관 바닥 10: 수습
조양동 유적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1: 5호 12: 11호 13: 38호 14: 52호 15: 58호 16: 3호 17: 20호 18: 55호 19: 62호 20: 2호 21: 25호
도항리 말산리 유적		 23	 24 25	 26 27 28	22: 도58호 23: 도60호 24: 도53호 25: 말3호 26: 말13호 27: 말15호
교동 유적		 29 30 31 32 33			28: 3호 29: 8호 30: 9호 31: 13호 32: 21호
다호리 유적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33: 51호 34: 48호 35: 53호 36: 67호 37: 35호 38: 43호 39: 69호 40: 71호 41: 66호 42: 70호 43: 68호 44: 31호

도면 10. 철검의 변화 (S=1/10)

3) 鎌과 따비

鎌은 단조철부 다음으로 분묘 부장율이 높은 유물이다. 무기류인 모나 검의 부장율에 가깝다. 그만큼 收穫具인 鎌이 생업에 준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비해 耕起具인 따비의 부장율은 매우 낮다.

I	II		III	木槨墓	
					
다호리 1호	팔달동 101호	임당동 A-1-148호	교동 8호	팔달동 117호	조양동 3호 조양동 63호

도면 11. 따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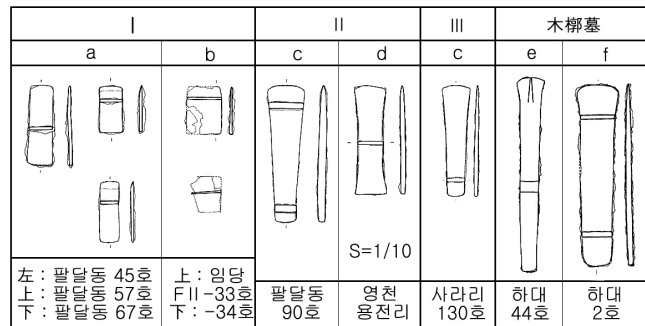
검은 I 기에는 조양동 5호묘에서만 출토되며 본격적인 부장은 II기부터 이루어진다. 자루와의 착장 방법이 둔각인 것(a)과 직각 또는 예각인 것(b)이 있다. 신부 끝도 굴곡이 심하지 않은 것(a)과 심하게 굴곡한 것(b)이 있다. 초기 자료는 전자의 요소들을 가진 예들이 많다. 전체적으로 보아 II기에는 상대적으로 길고 폭이 좁으며 끝이 만곡한 예가 많은 것에 반해 III기가 되면 특히 기부의 폭이 극단적으로 넓고 폭에 비해 신부가 짧은 검이 많이 출토된다. 이러한 변화는 목곽묘단계에도 이어진다. II기의 예가 실용적이라면 III기의 자료는 실용성이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다호리의 경우는 III기에도 II기에서와 같이 폭이 좁고 길이가 긴 예가 우세하다. 이것이 지역성을 반영한 것인지 추후의 검토가 필요하다.

따비는 팔달동, 임당동, 교동, 다호리유적의 12무덤(13점)에서만 출토되었다. 다호리유적에 출토예가 많은 편이다. 다호리 1호·19호와 같이 이른 시기부터 출토되고 있다. II기와 III기 자료를 비교하면, II기에는 先端이 직선에 가깝고 신부의 단면이 제형인 것에 비해 III기에는 선단이 둥글고 저변이 넓은 이등변삼각형으로 통일되어간다. 그것이 목곽묘단계가 되면 단면이 더욱 두툼해져 따비로서의 기능성이 많이 약해지기도 한다.

4) 板狀鐵斧

다호리 1호분에서는 선단의 날을 세워 자루에 장착한 것과 날을 세우지 않은 것이 함께 출토되었다. 철소재로서의 존재와 간단한 단야공정을 거쳐 제품화된 것의 명존을 보여주는 예로 생각된다.

목관묘단계에는 소형이며 평면 장방형인 것(a), 그보다는 폭이 넓으나 두께가 얇아 판상인 것(b), 대형이며 한쪽으로 폭이 증가해 제형을 이룬 것(c) 및 중앙이 오목하고 장방형인 것(d)의 네 가지 형식이 보인다. 이들은 같은 형식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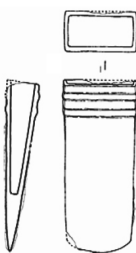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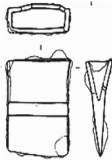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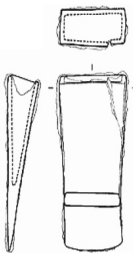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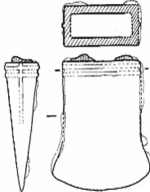
도면 12. 판상철부의 변화

도 크기에 차이가 있다. a는 팔달동 45호·57호·67호·75호묘, b는 임당동 FII-33호·34호묘 등 대부분 I기의 분묘에서 출토되고 있다. 특히 a의 경우는 날을 세운 경우가 많아 가공하여 자귀와 같은 공구로도 활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a·b는 이내 c의 형식으로 정형화된다. d는 용전리에서 출토되고 있으나 후대의 정형으로 되지 않은 것 같다. 이러한 정형화와 크기의 대형화는 본격적인 대규모 철기의 생산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 다호리 1호 출토의 판상철부가 그 대표 예로서 들 수 있을 것이다. 팔달동이나 예산리유적에서는 한 점씩 부장하던 것이, 성운경이나 이체자명대경이 출토된 다호리 1호묘, 조양동 38호묘, 영천 용전동에서는 다수 부장체제로 바뀌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III기의 사라리 130호묘의 관저와 주변에 70점의 판상철부가 부장된 것은 그 상징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5) 鑄造鐵斧

주조철부는 판상철부와는 달리 대부분이 2매 세트로 부장된다. 이러한 점에서 주조철부에 대해 地金說을 주장하는 것은 유력하다고 본다. 다호리 1호묘에서도 2매가 끈으로 묶여서 출토되고 있다. 변한의 경우, 판상철부와 주조철부의 부장양상에서 보아 당시 도항리유적이나 구지로유적은 열세에 놓여 있었으며, 교동이나 다호리유적은 상대적으로 우세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두 유적을 팔달동이나 임당동유적과 전체 유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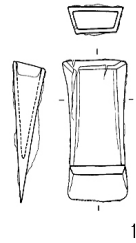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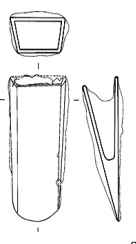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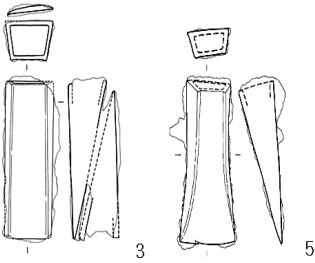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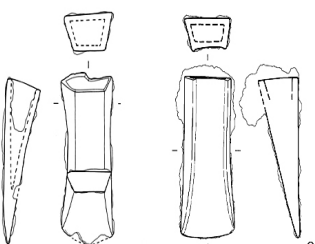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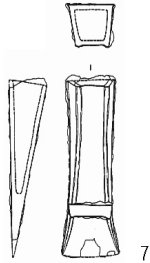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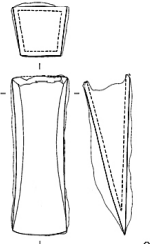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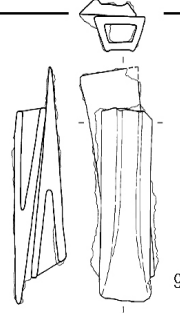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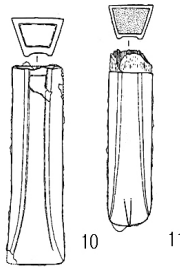
대비 부장울로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세력을 짐작할 수 있다고 본다.

I			II	III	木槨墓
			S=1/8		
임당동 FII-34호	팔달동49호	팔달동77호		양동(문)2호	저포리A40호

도면 13. 주조철부(쌍합범)의 변화

주조철부는 쌍합범제와 단합범제로 나뉜다. 먼저 쌍합범제는 단면 장방형이며 평면은 긴 장방형으로 인부의 폭이 공부의 폭보다 약간 좁은 것(a)과 단면이 육각형이고 평면은 폭이 넓은 장방형으로서 인부 쪽의 폭이 더 넓고 약간 호선을 이루게 된 것(b)의 두 가지가 있다. 각각은 공부에 돌선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b는 III기 늦은 단계의 양동(문) 2호묘 등에 보이며 주로 목곽묘단계 이후에 유행한다. a는 임당동 FII-34호묘, 팔달동 45호·49호·57호·77호묘 등에 보인다. 위의 고분들은 모두 I기에 속한다. 이 중 임당동 FII-34호묘 출토품은 공부에 2조의 돌선을 가진 것이고, 팔달동 49호묘의 것은 길이가 짧아 평면이 거의 방형에 가깝다.

단합범제는 단면이 제형으로서 변진한에서 독특하게 발전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폭이 좁아지고 길이가 길어지는 것이다. 공부의 폭 對 길이 비를 보면, I기의 주조철부가 약 1:2 전후의 것에서 II·III기로 가면서 1:3에 가깝게 변화하고 있다. 또한 부수적인 속성을 보면, 초기에 공부의 폭이 인부의 폭보다 거의 비슷하거나 큰 것(a)에서 인부의 폭이 큰 것(b)으로 변하며, 이에 따라 공부에서 인부로 가면서 중간에서 꺾여 벌어지기도 한다. 공부의 폭이 좁아짐에 따라 공부의 단면도 폭 대비 높이가 낮은 것(a)에서 높은 것(b)으로 바뀌어 간다. 인부는 직선적인 것이 대부분이나 목곽묘단계가 되면, 인부가 호선을 이룬 특징적인 것이 나타난다.

I	II	III	木槨墓
  S=1/8	 	 	 
1: 팔달동78호 2: 예산리1호	3: 예산리3호 4: 교동20호 5,6: 조양동11호	7: 팔달동117호 8: 예산리6호	9: 조양동1호 10: 하대44호 11: 하대1호

도면 14. 주조철부(단합범)의 변화

6) 鍛造鐵斧

단조철부는 변진한의 철기유물 중 분묘 부장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당시 사회가 철기문화의 수용에 힘입어 可耕地의 確保에 진력하였음을 반증해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단조품이라는 특성 때문인지 주조철부와는 달리 형태에 변이가 많고 대소의 차이도 크다. 크게 보아 공부에서 신부로 가면서 단이 지는 유단식(a)과 중간에서 꺾여 벌어지는 형식(b) 및 길이가 길어지고 단이 없이 좌우가 거의 평행한 형식(c)으로 나눌 수 있다. 이밖에 I기의 가장 빠른 자료로 생각되는 팔달동 75호묘의 예와 같이 길이가 짧아 평면형이 방형에 가까운 초기의 특이 형식(d)도 있다.

대개 I기에서부터 a가 우세한 가운데 a·b의 두 형식이 병존한다. 유단식은 차차 段差가 약해져 직선화되어 가는 하나의 경향도 보인다. 그러다 III기가 되면서 c가 많이 출토되는데, 공부가 완전히 말린 것과 반만 말려 끝이 벌어진 것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 c형식의 2종은 이후 목곽묘 단계에 주류 철부가 된다.

	I	II	III	木槨墓
A				
B				
	1,2: 예산리 1호 3: 도항리 38호 4: 팔달동 75호	5,6: 조양동 38호 7: 팔달동 92호 8: 도항리 63호 9: 도항리 60호 10: 용전리 11: 다호리 48호 12: 다호리 32호	13: 팔달동 30호 14: 팔달동 31호 15: 교동 10호 16: 교동 9호 17: 조양동 28호 18: 조양동 11호 19: 예산리 31호	20: 팔달동 111호 21: 팔달동 112호 22: 팔달동 117호 23: 사라리 130호 24: 다호리 66호 25: 예산리 39호 26: 예산리 4호 27: 조양동 23호 28: 다호리 69호 29: 다호리 70호 30: 조양동 20호 31: 조양동 1호 32: 조양동 25호 S=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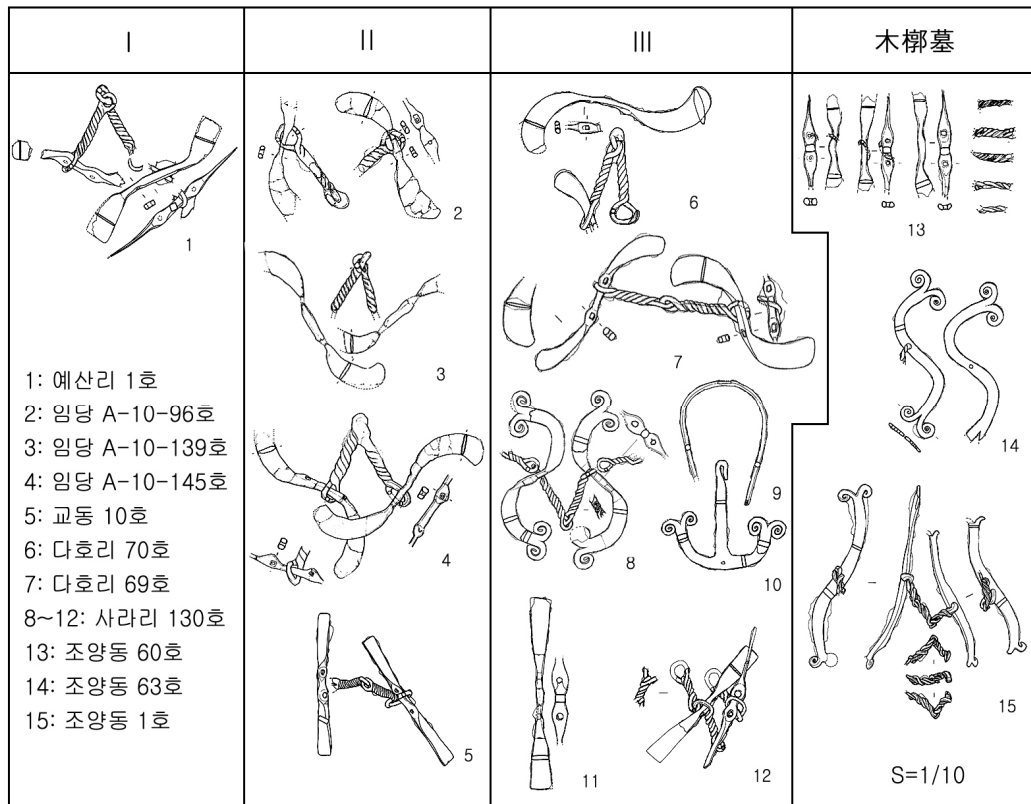
도면 15. 단조철부의 변화

3. 기타

1) 마구류

목관묘단계에는 기층에 가장 필수적인 재갈을 중심으로 한 마구류가 예산리 1호묘와 같이 이른 단계부터 시작하여 10여 무덤에서 출토되었다. 대부분 측면2공의 鑢와 2연식의 銜으로 된 鑢銜으로 구성된다. 표는 철제로서 S자상과 I자상의 것이 모두 출토되고 있다. 이것들은 평리동의 예와 같이 청동제를 철제로 전환한 것으로서 자체 제작되었다

고 생각된다. 당시에 이미 일부 계층에서는 기승문화를 누리고 있었던 셈이다. 목곽묘 단계에 재갈이 의기화한 것을 고려하면, 목관묘 단계에는 상당 수준에 도달했던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 된다. 다른 부속구가 공반 출토되지 않은 점에서 수레보다는 1인 기승의 마필문화가 영위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면 16. 마구의 변화

V. 맺음말

변한의 고지에 위치한 다호리유적의 발굴조사는 경주 조양동유적의 조사와 함께 우리나라 삼한시대 고고학의 성립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특히 분묘에서 통나무관의 발견은 조양동 조사 이후 板製棺에 고정되어 있던 우리들 인식의 틀을 깨서 이후의 발굴조

사에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할 수 있게도 해주었다. 다만, 당시의 조사가 도굴을 앞서 가지 못하였던 것은 지금 생각하여도 애석하기 짝이 없다. 다호리유적 발굴조사 20주년을 맞아 ‘다호리유적과 변진한의 철기문화’에 대하여 발표를 하게 되었으나, 정식보고서가 아직 공표되지 않은 관계도 있어서 ‘변진한의 철기문화’에 대해서만 개략적인 언급을 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당시의 물질문화가 ‘서로 섞여 있어(雜居)’ 함께 다룰 수밖에 없었으나, 앞으로는 양자의 구분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고 싶다.

이 글은 당시의 발표 내용에 참고도면만을 약간 보완하는데 그치고 있다. ‘변진한의 철기문화’라고 하는 주제 자체가 너무나 많은 개별 연구 주제들을 포괄한 것이기 때문에, 논지 전개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많은 헤량이 있기를 바라며, 개별 주제들은 앞으로의 연구에서 보완토록 하겠다.

끝으로, 지면 관계나 논지 전개에 크게 지장이 없다 판단되어 이 글의 기초자료가 되는 철기유물 출토 조건표의 제시를 생략하였으나, 그 기초자료의 집성과 정리를 함께 해 준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대학원의 이초롱씨와 도면작업을 도와준 부산대학교박물관의 윤형준씨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참고 문헌

□ 논문·저서

- 김광수, 2006, 「울산 달천유적」 『樣式的 考古學』 제32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한국고고학회
- 김두철, 2006, 「木槨墓 社會로의 轉換」 『石軒鄭澄元教授 停年退任記念論叢』, 부산고고학연구회
- 송계현, 2002, 「嶺南地域 初期鐵器文化의 收容과 展開」 『영남지방의 초기철기문화』 제11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영남고고학회
- 신경철, 1995, 「三韓 · 三國時代의 東萊」 『東萊區誌』, 동래구지편찬위원회
- 안재호, 2000, 「昌原 茶戶里遺蹟의 編年」 『韓國 古代史와 考古學』 鶴山金廷鶴博士 頌壽
記念論叢, 학연문화사
- 이건무, 1989, 「湖林博物館所藏 鐵戈」 『考古學誌』 제1집, 한국고고미술연구소
- 이남규, 1997, 「古代 鐵 및 鐵器의 生産技術」 『鐵의 역사』, 국립청주박물관
- _____, 2006, 「靑島遺蹟 製鐵關聯資料의 考察」 『靑島貝塚Ⅴ-考察編』, 경남고고학연구소
- 岡村秀典, 2007, 「中國鏡からみた原三國時代の曆年代」 『無文土器・原三國時代の曆年代』,
동아시아고고학회

□ 보고서

- 경남고고학연구소, 2000, 『道項里 · 末山里遺蹟』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5, 『星州 栢田 禮山里 土地區劃整備事業地區內 文化遺蹟發掘
調査報告書』
- 경성대학교박물관, 2000, 『金海 龜旨路墳墓群』
- 국립경주박물관, 2003, 『慶州 朝陽洞遺蹟Ⅱ』
_____, 2007, 『永川 龍田里遺蹟』
- 밀양대학교박물관, 2004, 『密陽 校洞遺蹟』
- 부산대학교박물관, 1997, 『蔚山 下垈遺蹟-古墳Ⅰ』
- 부산직할시립박물관, 1990, 『東萊 福泉洞萊城遺蹟』

- 영남대학교박물관, 1991, 『慶山 林堂地域古墳群 I -造永 I A地域』
- 영남문화재연구원, 1999, 『慶山 林堂洞遺蹟 I』
- _____, 2000, 『大邱 八達洞遺蹟 I』
- _____, 2001, 『慶州 舍羅里遺蹟 II -목관묘 · 주거지』
- 李健茂 · 李榮勳 · 尹光鎭 · 申大坤, 1989, 「義昌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I)」 『考古學誌』
第1輯, 한국고고미술연구소
- 李健茂 · 宋義政 · 鄭聖喜 · 韓鳳奎, 1995, 「昌原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IV」 『考古學誌』
第7輯, 한국고고미술연구소
- 李健茂 · 尹光鎭 · 申大坤 · 金斗喆, 1991, 「昌原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II」 『考古學誌』
第3輯, 한국고고미술연구소
- 李健茂 · 尹光鎭 · 申大坤 · 鄭聖喜, 1993, 「昌原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III」 『考古學誌』
第5輯, 한국고고미술연구소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8, 『慶山 林堂遺蹟 (I)~(VI)』